

# 광주, 민주 우세... '8석 싸움이' 전망

### 여야 핵심 지지기반...진보정당 지지도 높아

### 민주 "文정부위해" · 민생 "경쟁구도 만들어야"

21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2주간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한다.

여야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는 텃밭 탈환을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수성을 노리는 민생당 간 한 판 승부가 펼쳐진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정당의 지지율도 광주가 가장 높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는 8개 선거구에 42명이 후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8명, 민생당 7명, 미래통합당 2명, 정의당 6명,

민중당 3명, 국가혁명배당금당 8명, 기독교자유통일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5명 등이다.

광주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경쟁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과 민생당, 무소속 후보간 경쟁 구도다. 미래통합당은 '5월 학살의 후예'라는 인식이 강해 광주에서 설 자리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과 민생당 모두 광주를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으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현역 의원 중 7명이 아권이다.

민주당은 광주 서구갑만 송갑석 의원이 지키고 나머지는 민생당 5명, 무소속 1명, 국민의당 1명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 4년 전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광주 8석 전석을 내줬으나 이번엔 '싸움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8개 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민생당은 '인물론'과 함께 '호남대통령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독점적 지지는 광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과 민생당의 경쟁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략이다.

민생당은 민주당 후보가 모두 초선에 송갑석 의원만 1.5선이라 예산 확보는 물론 호남정치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광주가 민주당에 이른바 '물뿔' 지지를 한다면, '이제 호남은 다 됐다'며 타지역 비호남 대권후보를 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두 자릿수 득표율을 노린다. 득표율을 높여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광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다만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초선이라 민생당의 인물론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어필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 4·15궤전지를 가다



21대 총선 광주 광산갑 후보. 왼쪽부터 김동철 민생당 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후보, 나경채 정의당 후보, 정의성 민중당 후보, 오종민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 공동체 주치의 이용빈 vs 4선 중진 김동철

민주 · 민생 · 정의 · 민중 · 배당금당 등 후보 5명 등록

광주 광산갑은 4선의 터줏대감 김동철 민생당 의원과 '공동체 주치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의 성적표도 관심사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산갑 후보는 민주당 이용빈(55), 민생당 김동철(64), 정의당 나경채(46), 민중당 정의성(49), 국가혁명배당금당 오종민(49) 등 5명이다.

광산갑은 5선에 도전하는 현역 김동철 의원과 '경선 패배' 후 재추천 등 우여곡절 끝에 본선에 오른 이용빈 민주당 후보 간 리턴매치로 치러진다.

김 의원은 1989년 권노갑 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산구에서 배지를 달았다.

2008년 통합민주당 후보로,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잇달아 당선됐다. 2016년엔 국민의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출마해 4선 고지를 밟았고 2018년 바른미래당으로 옮겼다.

김 의원은 광산갑에서만 내리 4선을 하며 16년 넘게 지역구 관리를 해 탄탄한 조직력과 인지도가 최대 강점이다.

김동철 의원은 "총선 후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을 주도해 명실상부한 호남집권 시대, 뉴DJ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맞서는 민주당 주자는 이용빈 전 지역위원장이자 이 전 위원장은 전남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애초 육사에 진학했다가 9개월만에 자퇴하고 전남대 의대에 다시 입학한 뒤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냈다.

신봉우 기자

의사가 된 후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 청소년 등을 위한 봉사 활동과 시민단체, 사회혁신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동네 공동체 주치의'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풀뿌리 인재영입 1호로 김 의원과 격돌했으나 국민의당 녹색바람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당내 경선에서 이석형 전 함평군수에 패배했으나 이 전 군수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중앙당이 후보 무효 처리하고 이 전 위원장을 추천, 기사화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정부와 함께 일기를 극복할 더 강한 여당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나경채 광주시당위원장이 출격한다. 나 위원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관악구 구의원, 정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민중당 정의성 후보는 민중당 공동대표로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장을 지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오종민 후보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광산갑 선거판에는 2강2중1약 구도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용빈 위원장이 설욕전을 벌일지, 김동철 의원이 5선에 성공할지가 관심사다.

### 노관규 "청년 지원, 국가·행정이 책임져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노관규(무소속) 후보는 3월 31일 "청년들의 미래가 밝지 않은 우리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창업 실패로 져야 할 부담을 국가와 지방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관규 후보는 "청년은 순천의 미래다"고 규정하고, 순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아이디어 창업을 하다가 지게 되는 재정부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질 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이 공무원과 건물주



라면 우리 사회의 장래는 밝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청년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현실에 안주한 삶보다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관규 후보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젊은이들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관규가 앞장서겠다"며 청년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이윤석 "목포대의대 유치, 지역 오랜 염원사업"

"서삼석, 동남권 결성식 왜 참석"

지난 1일 이윤석 국회의원 후보자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우리지역의 염원사업인데 서삼석 민주당 후보자가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공동추진 결성식에 참석한것이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후보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서남권지역의 의과



대학 유치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오랜 염원사업이라고 말하며 서 후보자가 이런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지역민들은 서 후보자의 이런 행보에 대해본인의 생각과 사실여부를 지역주민들께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조속히 입장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안철수, 처가 여수서 전국 종주 시작... "비폭력 저항 의미 담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전남 여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국 종주를 시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공항까지 약 20km의 전국 종주에 들어갔다.

안 대표는 이날부터 14일동안 매일 20~30km 이상 총 400km를 달리면서 수도권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극복, 기술과 혁신, 지역민심 청취, 약속과 희망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국민의당의 현장정책대안발표, 선대위 회의 등을 진행한다.

안 대표는 "현장으로 뛰어들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드리고 싶다"며 "어렵고 힘들겠지만 아무도 안하고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면서 고단함을 참고 이겨내면서 한분이라도 더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내의 고향인 남평 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후 전남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희망과 통합의 달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수를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하루 20~30km를 뛰는 등 총 400km 국토 종주를 하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수에서 서울까지 국민들과 함께 만나서 응원하고 기득권 양당정치체력의 비례용 필수 위장정당에 비폭력 저항의 의미를 담아 뛰겠다"고 말했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